

# 광주형일자리 성공모델 등 신성장 생태계 구축 힘 모은다

## 광주시 민선7기 산업비전·추진전략 무엇 담았나

광주시가 민선7기 '이음섭 표' 광주 대표산업 육성과 추진전략을 내놓으면서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일궈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투자협약 완성차 공장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 하반기 완성차 공장 조기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인공지능 기반 관련 사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음섭 시장이 8일 발표한 민선7기 대표산업은 ▲친환경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스마트부품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G기반 ICT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김치 및 음식 산업 등이다.

먼저 광주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은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사업의 성공적 정착 및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완성차 중심의 생태계 경쟁력 제고 및 2-3차업체 기술역량을 강화해 지역기업 부품조달률을 높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에 집중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친환경차·에어가전·광융합·에너지·의료 등 집중 육성 분야별 차별화로 앞세워 미래 먹거리 기반 다지기 주력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은 최근 광주시가 LG전자와 공기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내 백색가전 인프라 혁신을 통해 대형실증을 위한 기반 및 대기업-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융합산업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역량을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웠다.

에너지 및 수소산업은 남구 에너지밸리산업에 에너지산업 육성,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 수소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산업 메카도시 및 수소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은 치매연구기반 조성고 고령친화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의료선도기업의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또 화장품·뷰티, 의료 기기 등 특화 및 전략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메디시티(Medi-city)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스마트부품산업은 표면처리 특화단지 및 금형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2월 인공지능(AI) 관련 미래산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통해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은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장비 등을 검토하고, 드론산업은 규제자유특구지원사업과 연계한 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순경중 시장전략산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하는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 암호화 기술을 장착해 31사 드론연구센터와 등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5G 기반 ICT산업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등 5G 통신의 특성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핵심산업인 가전, 자율주

행차,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스마트공장 등에 적용하는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로 먹고사는 광주를 위해 첨단영상, 게임, 음악, 공예·디자인, 예술테이먼트 등 5대 전략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수립해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또 관광산업은 의향·예향·미향에 기반한 온리원(Only-One) 전략으로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 테마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김치 및 음식산업은 미향광주에 광주만의 독특한 음식을 브랜드화하는 등 광주다움의 이미지를 제고해 미식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대기자

# “전남도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관리 허술”

## 강정희 도의원 “2년간 적발 1건도 없어...지도·감독 강화해야”

전남도의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강정희도의원(민주당·여수6)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의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총 52번의 지도·점검 중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로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3천96건

으로 밝혀졌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법) 등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기초 시험자료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록부 및 시약 소모 대장 등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지난 몇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파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 이뤄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해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 농시장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 확보”

## 지역 상공인 오찬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23개 관련 기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

벤처기업청, 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했다.

상공인들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자동차 전문 교육센터 설립 ▲청년 및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기업 자부담 완화 ▲기업 환경개선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제고 등을 건의했다. /최권범기자

이 시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확보, 지역민 고용 및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빛그린산단 내 산학융합캠퍼스에 ‘지역 전문 기술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남산단 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10억원으로 하수관로 보강사업을 하고, 기아자동차 광주 1공장 주변 도로의 배수 문제를 준설작업 및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최권범기자



전남도 현안사업 지원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서울 국립극단 집무실을 방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개발과 호남 한국학진흥원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2019국제농업박람회’ 대표상품 10개 선정

2019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준비중인 (세)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람회 대표상품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우수업체 대표상품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박람회 대표 상품은 ▲고흥, 해맑은팜 ▲무안, ㈜하이즈 ▲영광, ㈜하나식품·영광황토굴비·새들원·영광웰빙식품 ▲해남, 팜팜햇살찬 ▲나주, 명성제분 ▲강진, 강진도깨비농장 ▲장흥, 미리얼 등 총 10개사 10개 제품으로, ‘2019국제농업박람회’ 대표 상품으로 국내·외 바

이어를 만나게 된다.

박람회 대표상품 발굴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의 상품을 박람회 대표상품으로 선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바이어 등과 연계해 매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표상품은 ▲B2B상담회 2회 개최 ▲대표 상품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박람회 홍보판매부스 제공 및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 ▲박람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판로 개척 지원 및 해외수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채만기자

오는 10월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비즈니스데이’를 별도 운영해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의 만남의 장을 제공, 농업 판로개척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제농업박람회 전광호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제농업박람회가 비즈니스 박람회로 한발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 범 전기계 화합 한마당

# 제14회 광주전기인체육대회

- 일 시 : 2019. 5. 11 (토) 오전 10시 (개회식)
- 장 소 : 광주어린이교통공원 운동장(북구 오룡동)
- 주 최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 참여기관 :
  - ▶ 광주광역시청
  - ▶ 광주광역시 교육청
  -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 KEPCO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광역시전남도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회 장	김종철	중 앙	회 이사	문 유 근
부 회 장	노정규	전 기 신 문	이사	차 상 준
		전 기 산업 연구 원	이사	이 기 업 호
		전기공사공제조합장회	이사	신 정 호

광주광역시회 운영위원 · 윤리위원 일동